

금요일

먹이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6:1-18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 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 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나?'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명에 한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작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들인 것이다.

묵상

부모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우는 자식을 대책 없이 바라보는 순간일 것입니다. 마른 눈에 물들어 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 가는 것이 제일 좋은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마 6:11) 빵 일곱 개와 물고기로 사천명을 먹이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막 8:3)

샘과 종려나무가 풍족했던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지 꼭 한달째 되는 때였습니다. 그 동안 마실물도 주셨으니 먹을 것도 주시겠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또 다시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원망도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망은 기억을 편집하고 과장하게 합니다.(출 16:3)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평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 16:9,12)

원망까지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일까요? 주님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이 거두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들였기 때문입니다. 남기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아침까지 비축해 둔 이들이 있었지만,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습니다. 다만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두 배로 거두어 들인 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거두어 들였던 하늘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만후’에서 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양식은 ‘만나’입니다. 무엇하나 당연한것이 없는, 하늘이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PRAYER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얻는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대하는 모든 양식은 하늘 양식입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 묵상

어둠의 끝에서 찾은 평화/흑암의 예배_미하엘 하이든의 테네브레

테네브레(Tenebrae), 고난주간의 목요일 성만찬 예배와 성금요일 철야 예배를 가리키며 ‘어둠’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예배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8 세기에 이르러 전례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테네브레의 중심이 되는 요소는 성경 봉독과 어둠 그리고 침묵입니다. 통상 열세 개의 초에 불을 밝혀놓고 정해진 성경을 한 부분 한 부분 낭송할 때마다 촛불도 하나씩 꺼나갑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조용히 참회기도를 하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열세 개의 초는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초를 좀 더 크게 구별하여 준비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것으로, 구약에서는 시편과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처형에 이르는 고난주간 사건이 기록된 구절을 읽습니다. 십자가상의 칠언을 의미하는 초 일곱 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로 시작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로 마치는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는 영적인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빛 되신 그 분을 알지 못해 십자가에 매달았고 우리의 죄가 그 빛을 못 박아 우리 스스로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1:5)라는 말씀과, 누가복음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23:44)라는 말씀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테네브레에서의 어둠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의 어둠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 하나 끈 촛불과 함께 내안의 악함, 욕심, 부정 등이 사라진 어둠입니다. 빛을 맞이할 평화의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많은 작곡가에게 음악을 통한 신앙고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로 어제 들었던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도 테네브레 찬양입니다. 오늘은 하이든(M. Haydn, 1737-1806)’의 것을 들어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세상은 캄캄합니다. 하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내게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나’가 사라진 어둠이니깐요.